

AUTHOR 김재성 (Jea Sung Kim)

TITLE 칼빈신학의 구조와 신학의 중심진리
(The Structure of Calvin's Theology and the
Central Dogma)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17 no.1 (May, 1999):295-307

여기에 모든 原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다 “自己”를 더 믿는 Descartes의 휴머니즘에 문제가 있습니다(Discours de la methode, 1637). 이 不信의 시작이 150년 후에 Kant 때에는 당시의 知性에 속 깊이 뿌리 박히기 시작했고(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 다시 100년 후에 Harnack 때에는 이미 不信이 상식화 되게 되었고(Das Wesen des Christentums, 1900) 다시 100년이 지난 오늘에 “믿음을 찾는 일”이 어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 “神學”을 탈 할 것이 아니고 “믿음을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ACTS 교수진과 合同神學院 教授陣이 이 일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神學共觀”의 일을 온 世界神學界를 向하여 傳播하는 동시에 그 中心眞理가 바로 우리 自身에게 共同으로 이루어지는 信仰운동을 힘차게 展開하여 나가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칼빈신학의 구조와 신학의 중심 진리:

- 한철하 박사의 “칼빈신학과 신학공관”에 대한 논평 -

김 재 성

<조직신학·조교수>

먼저 칼빈사상연구소 제 1회 강좌에 오셔서 귀한 강연을 해주신 한철하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일생을 통해서 한국 신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시고, 특히 칼빈의 신학을 강조하여 후학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논평자는 여러 차례, 세계 칼빈 학회에 나가셔서 많은 학자들과 열심히 토론하시는 한 박사님의 높은 학문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개인적으로 매우 큰 도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1998년 세계 제 7차 칼빈 학술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신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논평은 그 날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로 한 박사님의 발표 후에 질의하지 못한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칼빈신학

의 구조와 신학의 중심 진리”로 집약해 논평해 보고자 한다.

1. 한철하 박사님의 논문에서 제기된 주제는 칼빈 신학을 총체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 구원론적 이해와 복음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특히 한 박사님은 종교개혁의 3대 주제 가운데서, sola Scriptura(오직 성경으로만!), sola Gratia(오직 은혜로만!)보다는 sola fide(믿음의 중요성)를 역설한다. 한 박사님이 신학공론에서나 칼빈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개혁신학의 뿌리를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신학적 맥락이 함께 하고 있다고 본다.

한 박사님은, 논평자를 포함한 여러 한국 칼빈 학회의 주요 학자들이 공저로 출판한 『칼빈신학해설』(서울: 기독교서회, 1998)에 기고한 논문, “칼빈신학의 구원론적 이해와 복음사역의 중요성-골 1:21~23”(11~38쪽)에서도 역시 같은 강조를 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박사님은 일관되어 “칼빈은 『기독교강요』 전체를 신앙이란 한마디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있다”(20쪽)고 주장하고, 그리고 신앙론이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우선 논평자는 칼빈의 신학에 대한 총론적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첨언하고, 질문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

칼빈의 구원론은 그의 신학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세 신학에서 무시된 성령의 사역을 회복시킨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고, 정교한 분석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필자는 이런 강조의 배경과 시대적 요청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16세기 유럽 종교개혁 당시, 중세 말기 신학은 매우 왜곡되어 있었다. 구원의 과정을 중요시하던 로마 카톨릭의 행위 중심의 구원론에 빠져 있었다. 중세 신학은 구원의 은혜를 성례에 연계시키는 것이었고, 의롭게 되는 과정에서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돋보이도록 전개되었다. 성례주의라는 매카니즘

을 산출한 것이다.

특히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만 하는가에 비중을 두고, 선행적 은총을 받아서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함을 역설하였다. 고해성사는 칭의를 향한 연속적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규범적인 행사가 되어 버렸다. 칭의는 의롭게 만들어져야 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의롭다고 선포되고, 선언되고, 간주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법적인 칭의, 외부적인 칭의, 의의 전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의로움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말하는 오류를 교정하고자 저술한 부분이 제 3권에 담겨있는 주제들이다.

따라서 칼빈은 칭의와 의로움이란,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믿음이라는, 구원의 수단과 최종적 근거(final cause of salvation)임을 강조한 것이다. 인간의 노력들, 회개, 성화, 사랑, 봉사들을 단계화하여 신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광과 우선권은 절대로 간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칼빈은 구원론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고 강조하였다.¹⁾

2.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보면, 제 3권에서 초두에 믿음이라는 주제를 거론하면서, “믿음은 성령의 가장 첫째로 손꼽히는 근본적인 사역의 방법이다”(faith is the first principal method of the Spirit's work)라고 했다. 그리고 먼저 믿음을 거론하고 있다. 요한복음 1:13에서 중생(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설명하면서도, 역시 칼빈은 믿음의 우선권을 고집하고 있다. 필자의 박사논문, “Union with Christ:

1) *Inst.* III.xi.1: “... one sole means of recovering salvation, ...”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Calvin's Theology,"(116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칼빈이 믿음을 중생이나 회개, 성화, 칭의, 양자됨이나 영화에 앞서서 먼저 거론하고 다루었다고 해서, 이 주제만이 가장 중요하고, 전체 칼빈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그의 시대적 상황이 로마 카톨릭의 행위를 중시하는 신학에 맞서서 믿음을 먼저 거론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로 개혁신학자들 거의 대부분 칼빈의 이런 구조는 16세기 유럽의 시대적 특성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의 경우에 과연 어떤 한가지 중심 주제, 예를 들면 신앙론만으로 그의 여타의 모든 신학 주제들을 풀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강력히 회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는 이미 여러 칼빈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된 바 있고, 논평자도 역시, 칼빈의 신학을 푸는 하나의 만능키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²⁾

논평자는 어떤 한가지 주제에 집착하는 인과율적인 구원의 서정 이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떤 한가지를 중심에다 놓고 다른 것을 그것에만 연관시키려는 것은 매우 경직된 구도로 빠질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중심 주제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원인과 결과로 대체시키게 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믿음이란 단순하게 다른 주제들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믿음을 먼저 거론하면서 칼빈이 의도하는 바는 교육적으로, 논리적으로 로마 교회의 공로 사상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자, 영구적이고도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것이다.

3. 믿음론을 다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른 연관된 주제들을 동시

2)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122~126쪽을 볼 것.

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이신득의'(justification by faith alone)에서와 같이, 믿음은 칭의와 동시에 복합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복합적인 칼빈의 구원론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켜서, 먼저 거론했다고 해서 믿음론을 위주로 이해해야만 한다면, 이는 칼빈의 구원론이 지닌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칼빈의 신학에서 구원론의 주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믿음은 칭의와 함께 강조되고, 칭의와의 연결성이 밝혀질 때에만 생명력을 가진다. 믿음은 칭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를 간파한 벨카워(G. C. Berkouwer) 교수에게 들어보자.

Thus, when he gives separate treatment to justification by faith, after discussing faith, repentance, and regeneration, it is not as though he therewith begins a new subject. He is quite conscious of his concentric mode of thought, describing justification as the main pillar on which religion rests. Here, too, Calvin's primary concern is the correlation between faith and justification.³⁾

왜 칼빈이 먼저 믿음을 거론하고 나중에 여타의 주제를 설명하는 지에 대해서 웬델(Wendel)도 역시 칼빈이 병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근본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나서 회개에 관한 장을 다룸에 있어서 칼빈은 이와 같은 계획을 채택하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확실히 말하고 있다. '이 점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논리적인 순서를 따랐으며 적어

3)Berkouwer, *Faith and Justification*, tr. Lewis B. Smedes(Grand Rapids: Eerdmans, 1954), pp.28~29.

도 그렇게 하려고 애썼다. 어쨌든 그가 채택한 계획은 그가 칭의보다 중생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를 소개하고자 의도한 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듯이 칼빈은 그것들을 똑같은 수준에서 병행하여 생각하였다.⁴⁾

만일 어떤 학자가 한 박사님과 반대로 칭의만을 핵심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중심 주제를 강조한다고 할 때에 칭의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 칭의론을 중심 주제라고 한다면도 일면 긍정할 수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로마서 1:17에 근거하여 ‘이신득의’를 주장한 루터는 ‘믿음’보다는 ‘칭의’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다. 루터는 칭의야말로 교회를 세워 주고, 존폐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 교리라고 강조하였다. 이 칭의 교리가 없다면, 교회는 단 한 시간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justification] is the head of cornerstone of the church, which alone begets, nourishes, builds, preserves, and protects the church. Without it the church of God cannot subsist for one hour.”

칼빈 또한 얼마나 칭의를 중요시했는가? 그는 구원론 중에서 사본의 일, 무려 100여 페이지를 할애하여 칭의론을 다루고 있다. 단일 주제로는 『기독교강요』 전체에서 가장 긴 장에 해당한다. 칭의를 다루면서, 칼빈은 “종교가 돌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강조했다.

4) F. Wendel, *Calvi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Philip Mairet (London: Collins, 1963), pp.233~234.

“이제 우리는 믿음에 의한 칭의에 관하여 보다 폭넓게 고찰하여야 하며 또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주요한 주제로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⁵⁾

앞에서 인용한 칼빈의 이 한마디는 『강요』에서 믿음이나 중생을 칭의보다 먼저 다룬 이유가 결코 칼빈 자신의 사적인 가치 판단 때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다른 곳에서 그는 칭의를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와 모든 신앙의 기초에 근본이 되는 원리’라고 서술하였다.⁶⁾ 루터와 같이 칼빈도 중생이란 단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가치있는 존재로 용해되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 하심은 결코 중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통해 이루어진다.

논평자는 칼빈의 구원론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다양한 적용의 측면들은 서로 켈레야 켈 수 없는 연관 속에 조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재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칭의와 중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칭의의 은혜는 중생과 별개의 것이지만 이 둘을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다.”⁷⁾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칼빈은 칭의와 중생을 단순한 병렬 관계로 두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칼빈은 ‘칭의’와

5) *Inst.*, III.xi.1. “We must discuss them as to bear in mind that this is main hinge on which religion turns so that we devote the greater attention and care to it.” 참고, 김재성, “칼빈의 칭의론과 트렌트 종교회의” *신학정론* 13(1995): 203~233;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179~180쪽. 특히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게할더스 보스 교수(G. Vos)도 칭의론을 강조하여 이 교리야말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받침대와 같은 교리라고 했다; “justification is the pivotal point around which everything moves.”

6) *Sermon on Luke* 1:5~10.

7) *Inst.*, IV. i. 11.

‘중생’을 연대적인 관계로 놓으려고 하지도 않았으며,⁸⁾ 그 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또한 하나가 다른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역설한다.

칼빈의 구원론에서 성화는 칭의보다 먼저 다루어져 있다. 이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시, 성화도 칭의의 목적이 아니다. 성화는 칭의와 같은 근원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독립적인 것이며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칭의와는 논리적으로 별개의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비롯되는 두 은혜를 통합하는 때, 즉 성령의 존재와 본성에 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insitio in Christum*)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 혹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있음을 보여 주었다. 『강요』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대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救贖)함과 지혜와 의로움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성화가 되신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은혜들은 영원한 때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 분의 지혜로서 조명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구속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와 같이 주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일이 없으시며, 결코 한 가지만 주시는 적이 없으며 두 가지 모두를 주신다.⁹⁾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들, 즉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

8) *Opera Calvini*, 7:735: “Dum fide inserti in Christi corpus, Idque spiritus sancti virtute, primum iusti censemur gratuita iustitiae imputatione, de inde regeneramur in novam vitam.”

9) *Inst.*, III, 16, I.

신 모든 은혜는, 모든 은혜들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¹⁰⁾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잘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들을 서로 혼합하지 않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별개의 것임을 매우 명백히 밝히고¹¹⁾ 있다. 실로 현세의 삶 동안의 성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이며, 현세에서 신자가 아무리 진보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는 죄인이다. 반면에 칭의는 우리를 입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義)가 완전한 것처럼 첫 영접의 순간부터 완전하다.¹²⁾

한편 교리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칼빈의 구원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이 아니라, 이 칭의와 성화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은혜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강요』의 저자는 칭의만을 강조하는 루터와 그 추종자들과는 맞지 않는다. 칭의론은 개혁신학에서 보다는 루터파 신학에서 교회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칼빈은 루터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칭의론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칼빈은 루터보다도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가장 심도있게 논의하였지만 그는 이 교리만으로 구

10) *Inst.*, III, 11, 6: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나게 찢을 수 없는 것처럼 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서 그들을 함께 결합된 상태로 받기 때문이다.”

11) *Ibid.*

12) *Inst.*, III, 11, 11: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삶을 개혁시키기 시작함으로써 이 역사를 점차 진행하시며 죽을 때까지는 완전히 이룩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만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입은 신자들이 천국의 문 앞에 담대하고 거짓 없이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원의 적용을 다루는 전체를 보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칼빈이 비록 믿음을 구원론에서 가장 먼저 다루었어도, 이것으로만 구원론을 이해하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전체구조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으로 보아야 한다.

성부가 그의 독생자인 성자에게 주셨으며,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쌍하고 곤궁한 인간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첫째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고 그 분이 우리에게 떨어져 계시는 한, 그 분이 고난 당하신 모든 것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채로 머무르게 된다. ... 또한 우리는 그 분 안으로 접목되어야 하고(롬 11:17),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갈 3:27).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그 분과 한 몸이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령의 비밀스러운 사역을 점점하도록 가르치는 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분의 모든 은혜를 즐겨워하게 된다.¹³⁾

칼빈은 구원의 축복들을 거론하면서, 그리스도를 이런 축복들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우리 것이 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4. 구원의 적용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은 언제나 성령의 사역과 떼려야 뗄 수 없다. 한 박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강의

원고 5쪽에서 매우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의 사역의 결과이다. 따라서 믿음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열매인 중생, 회개, 성화, 영화를 떼어놓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는 우리 자신 속으로 주관적이 되면(subjective view) 폐쇄적이 될 위험성이 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과 그 분과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인간의 믿음, 즉 개인적인 차원만이 강조되는 구원론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으면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인간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기울어지면 안된다.

구원론의 중심 주제들은 성령의 사역을 떠나서는 결코 불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령의 적용사역을 구조화하는데 있어서 믿음의 위치와 기능을 생각할 일이다. 성령의 핵심적인 역할은 칼빈이 『기독교강요』 3권에서 가장 강조한 바이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라고 워필드 박사가 별명을 정한 것이다.

5. 과연 한 박사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칼빈과 웨슬레의 핵심 신학이 믿음론에서 상호 일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 두사람의 신학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교리사적 연원을 따져 보고, 네델란드 신학자들이 개혁신앙과 알미니안주의와의 대조를 어떻게 제시하는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 박사님은 신학공관을 위해서 칼빈과 요한 웨슬레의 믿음론이 한치의 차이점도 없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후예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은총론’을 비판하면서 문화의 전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운동을 전개한 것에 대해서 일관된 비평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웨슬리는 분명히 칼빈의 개혁신학을 반대하였고, 특히 헛필드와의 논쟁에 웨슬레는 ‘예정론’을

13) Inst., III. I. 1.

‘끔찍한 교리’라고 주장했다. 웨슬레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만 나타내시는 초자연적인 표적들을 지나치게 확신하였다.

요한 웨슬레는 ‘값없는 은혜’(free grace)라는 설교에서, 자신이 왜 예정론과 칼빈주의자들을 거부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이것[예정론]은 참람함으로(blasphemy) 가득찬 교리로서 그 참람함은 감히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것으로서 ... 이 교리는 우리의 복되신 주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선자요, 사람들을 속이는 자요, 보편적인 성실함조차 결핍되어있는 사람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예정론이라면 끔찍한 강령에 분명히 내포되어있는 참람한 내용이다! 여기서 나는 내 마음을 정했다. 덧붙여, 나는 이 교리를 주장하는 모든 자들까지 함께 비난하는 바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을 마귀보다 더 나쁜 분, 마귀보다 더 그릇되고 더 잔인하며 더 불의한 분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⁴⁾

비록 웨슬레가 칼빈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의 확신은 너무나 지나쳤다. 그가 칼빈과 같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그것을 선포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되어 있지 않은가! 웨슬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종의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웅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으며 그러한 성향들이 그의 모든 행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웨슬레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주장하면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교리적으로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말았으니, 자신들은 여러 주 또는 여러 달 전 도여행을 다니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비성경적이에요, 위험천만한 교리에 몰입하였다.

14) John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London: Epworth, n.d.), pp.15~16; *Wesley's Works*, vol. 3(London: Mason, 1847), p.357에 실린 설교, “Free Grace”; *John Wesley's Letter*, vol. 1., p.302.

결론

끝으로, 한 박사님의 ‘신학공관’에 대해서는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저명한 신약학자, 칼슨(D. A. Carson) 박사께서 1999년 3월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을 방문하여 세밀하게 서술한 바 있어서 중복을 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평자는 신학공관 부분에 관해서는 단지 한 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이 기독교 신학의 중심 진리인가?’라고 묻는다면, 논평자도 역시 ‘복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이나고 한마디로 대답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에, 까다롭고 기다란 수식어를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리에 대한 어려운 전체와 설명이 뒤따르게 된다.

한 박사님께서서는 신학은 성경전체를 통관하는 중심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로마서 3:28과, 요한복음 20:30~31, 디모테후서 3:15~17을 강조하였다. 여기서는 성경의 구원론적 관점이 부각되고 있는 바, 이것을 신학공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임에 틀림없지만, 구약과 신약의 다른 부분들과 연결을 지어야만 그 의미와 내용이 밝히 드러난다. 따라서 성경에서 복음과 구원사역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나 한 주제만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신구약 전체와의 연관성을 통해서만 풍성하고 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항상 신학자들의 관심이란 서기관 노릇하는 일이라고 반성하시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자고 말씀하신 귀한 강의에 감사 드린다. 현대 신학은 분명 영혼 구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도와 선교적 관점을 놓치지 말자는 강조에 깊이 공감한다. (*)